

석유화학업계, 구조재편·스페셜티 강화에도 실적개선 ‘난항’

LG화학, 지난해 석유화학 부진에
영업손실 3560억… 적자 폭 확대
반도체용 세정제 등 스페셜티 속도
금호석유화학, 영업의 전년비 0.4%↓
합성고무·수지 사업서 대규모 적자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도 적자 전망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구조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실적 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황 회복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기업들이 올해 돌파구로 내세우고 있는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여건도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월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1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1조3461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16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등 핵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심 사업 부문의 부진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석유화학 부문 영업손실은 3560억원으로 전년(104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LG화학은 올해 실적 목표 역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매출 목표는 23조원으로, 지난해 수준(23조8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반도체용 세정제(IPA), 전기차용 고성능 합성고무(SSBR) 등을 중심으로 스페셜티 소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CAPEX)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향후 2~3년간 재무 개선을 우선해 연간 투자 규모를 2조원 이하로 관

리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8% 급감한 15억원에 그쳤다.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합성고무·수지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합성고무 수요 둔화와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올해 스페셜티 사업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 역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실적을 공개하는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연간 73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202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5일 실적 발표를 앞둔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중국발 저가 물량 유입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올해 업황 전망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에서 신·증설이 지속되는 만큼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스페셜티를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역시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페셜티 산업은 1~2년 안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범용 제품 중심의 대량 생산 구조가 점차 다품종·소량 생산 체제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산업 전환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산업부, ‘게임체인저’ 소부장 생태계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오늘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
생태계완성형·지역주도형 중점 발굴
수요기업-소부장 기업 함께 혁신 추진

산업통상부가 ‘게임체인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3일부터 소부장 협력모델 후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새롭게 도

입되는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 ▲지역주도형 협력모델을 중점 발굴한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대표적인 소부장 지원 제도로, 그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과제 74건을 발굴·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히토류 영구자석, 이차전지 파우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는 양산 공장 설립도 이끌어냈다.

다만 최근 산업 경쟁이 국가 간 경쟁

으로 격화되면서 기존의 ‘모방·추격’ 중심, 단일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차세대 품목을 선점하고 생태계 단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게임체인저 품목을 겨냥한 ‘생태계완성형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최종 수요기업이 주도해 게임체인저 품목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 전반이 함께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은 단순 과제 참여를 넘어 소부장 생

태계 설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수요기업에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R&D 총괄 책임을 부여하는 대신 ▲R&D 참여기업의 자율적 선택·변경 권한 ▲대형 R&D 자금 및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을 축으로 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주도형 협력모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소부장 특화단지 전용 지원 유형으로, ▲단일 지역형 ▲지역 간 협력형 두 가지로 나뉘 운영된다.

단일 지역형은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증축 등 설비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지방정부와 지역 내 앵커기업이 소부장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면, 중앙정부가 확약내용과 생태계 기여도를 검토해 협력모델로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R&D와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금융 등이 연계 지원된다.

지역 간 협력형은 서로 다른 특화단지에 위치한 수요·공급기업 간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일 지역의 성과가 권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고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1호]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연장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면적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7579.1㎡

2. 건축물의 내용(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지하 4층 ~ 지상 14층) 2) 대지면적 : 7579.1㎡(실사용 면적)

3) 건축면적 : 2,228.5772㎡ 4) 건축연면적 : 32,515.5893㎡ 5) 건폐율 : 29.4%

6) 용적률 : 234.1% 7) 높이에 관한 계획 : 지하 4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미터 이격

9) 공동이용시설 : 1939.3238㎡(주민공동시설)

3. 분양신청 연장 기간 : 2026년 2월 10일(화)까지(7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에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 제외)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비고
분양주택	40	5	40.5254㎡	15.6019㎡	56.1273㎡	16.9785평형
	49	19	49.5995㎡	19.4601㎡	69.0596㎡	20.8905평형
	59A	14	59.8678㎡	22.7446㎡	82.6124㎡	24.9902평형
	59B	6	59.7337㎡	23.8131㎡	83.5468㎡	25.2729평형
	59C	14	59.9767㎡	22.6366㎡	82.6133㎡	24.9905평형
	74A	28	74.9955㎡	27.7244㎡	102.7199㎡	31.0727평형
	74B	8	74.9675㎡	28.4067㎡	103.3742㎡	31.2706평형
	84A	26	84.8718㎡	30.7954㎡	115.6672㎡	34.9893평형
	84B	14	84.9404㎡	31.3319㎡	116.2723㎡	35.1723평형
	108A	9	108.4649㎡	40.2856㎡	148.7505㎡	44.9970평형
	108B	12	108.6375㎡	41.7277㎡	150.3652㎡	45.4854평형
	합계	155세대	11,556.5232㎡	4,332.1359㎡	15,888.6591㎡	-
근린	유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비고
	1층	135.1418㎡	30.9300㎡	250.8317㎡	416.9035㎡	
	합계	135.1418㎡	30.9300㎡	250.8317㎡	416.9035㎡	

※ 상기 내역은 건축심의 기준이며, 향후 관리처분 및 인허가(변경모함)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신청 자격 :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단, 우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8.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신청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에 한함.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 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함.

10. 이주 및 월거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월거 및 이주 기간에 결정되며 이주 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함.

※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안내서를 첨부하여 개별 통지할 것이며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함.

[2026년 2월 3일]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김재문 [직인 생략]

이달 전국 아파트 1만4222세대 분양… 공급회복 기대감

일반분양 6091세대… 전년비 2배↑
수도권 9227, 지방 4995세대 집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쳐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중심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422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6091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가량 많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영향이 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분양 일정은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실제 분양 실적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분양시장은 계획 대비 실적률이 총세대수 기준 약 69%, 일반분양 기준 약 78%로 집계됐다. 1월 분양계획 물량은 총 1만1635세대(일반분양 4816세대)였으나 실제 분양 실적은 8056세대(일반분양 3735세대)에 그쳤다.

분양 관계자는 “연초에는 건설사들이 마수결이 사업장 선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며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점검이 더해지면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뒤로 조정됐고, 그 결과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2월 분양예정 물량은 수도권 9227세대, 지방 4995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5204세대, 서울 4023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 1777세대, 전남 1365세대, 부산 1035세대, 경남 519세대, 대구 299세대 등이다.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단지 공급이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557세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1161세대),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251세대),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2054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3022세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풍동2지구A3-1·2블록(526세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제3단지(1056세대), 경기 양주시 삼송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600세대)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자이더스카이(519세대), 경북 경산시 상방동 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1004세대),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림탄플레이스트라이빗(299세대),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669세대), 전남 여수시 신기동e편한세상여수글렌즈(1365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